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음 6월 20일) 제18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0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각 실국장, 일자리정책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에 맞춰 전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있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 주력

▶ 도, 협업토론회 개최

새정부 정책 기조 따라 지역특화 일자리 등 4대전략 17개 과제 대상 경쟁 논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등 정부 정책, 도 시책과 연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 따른 자체 지원 대책 마련키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기조에 따라 전북도가 일자리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는 10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 및 일자리정책 관련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할 도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협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에서 추진할 일자리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른바 '전북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 실국에서 발굴한 4대전략 17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쟁점이 논의됐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 키워드인 4대전략은 '지역특화 일자리', '취약 일자리', '미래 일자리', '공공 일

자리'이다. 먼저, 지역특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북도의 강점인 '삼락농정', '문화관광', '탄소산업' 등 이른바 3대 핵심도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농생명청년창업특구조성 등 농식품 청년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전북투어패스 기반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 탄소소재 상용화 촉진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이른바 '취약 일자리'의 확충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 채용,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확대 등 정부정책을 전북도 시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에 따른 자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도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유도할 전망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일자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핵심기술 중심의 신산업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금융태운 조성을 통한 금융서비스 일자

리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관련기관의 전북이전을 촉진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하반기에 소방, 사회복지 등 161명의 공무원이 신규채용되며, 최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 및 시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 새 정부의 정부정책 방향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며, 9월중 도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대 토론회를 개최해 도 정책을 도민과 공유하고 일자리 정책 추진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일요일 신문 읽습니다.

매일 INDEX
3면 - 지방세도 부자증세
6면 - 대리점 향한 갑질 정조준

전주국제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 되다

美 무비메이커,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 중 하나로 소개 아시아권에서 유일... '잊을 수 없는' 영화제로 평가받아

전주국제영화제가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적인 영화제로 인정을 받았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영화비평지이자 미국 영화 전문매체인 '무비메이커(Movie Maker)'는 최근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 중 하나로 소개했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와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로스앤젤레스 아시아인 퍼시픽 영화제, 시카고국제영화제, 비엔나국제영화제 등 세계적인 영화제들이 포함된 가운데,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권에서 선정된 영화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유일하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어떠한 제약이 있더라도 영화를 지키겠다'는 김승수 시장의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영화 표현의 자유를 지킨 대한민국 대표

영화제로 자리매김해왔다.

무비메이커는 해마다 영화제작자와 감독, 영화제총감독, 작가, 비평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멋진 영화제로 소개된 아시아권 영화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포함해 지난 2014년의 홍콩국제영화제와 2015년 레바논 문화적 저항 국제영화제, 인도네시아 육자-아시아영화진흥기구 아시아영화제 등 단 네 곳 뿐이다.

특히, 선정위원들은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 '잊을 수 없는(Unforgettable)' 영화제로 평가했다.

또한, "이 한국의 영화축제에서 발견되는 호기심은 부산국제영화제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지만, 프로그램은 언제나 흥미롭다"며 "아시아 인디 영화들과 처음 상영되는 한국영화들,

실현영화들, 다른 영화제에서는 볼 수 없는 전 세계의 희귀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8회째인 전주국제영화제는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최단 기간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제작을 지원하고, 해마다 자백,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천안함 프로젝트 등을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영화들을 가감 없이 소개해 영화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영화제로 인정을 받아왔다.

또, 전 세계의 다양한 대안·독립·실험영화들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영화발전에도 기여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영화의 본질은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있다"며 "전주국제영화제는 그 어떤 위압에도 흔들림 없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권력과 자본 앞에서 당당한 영화제다. 앞으로도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서 독립과 대안의 정체성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영화제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길이 43m... '호남 최대 초기 청자가마' 발굴

전라북도 기념물 제134호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요지(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산 40-1번지)에 대한 5차 문화재 조사에서 호남지역 최대의 초기 청자가마가 확인됨에 따라 학술 자문회의가 10일 도토리 중평마을 조사현장에서 열렸다.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가마터로 밝혀졌다.

5차 문화재 조사에서 확인된 청자가마는 2016년 4차 조사에서 절반 가량 확인된 2호 가마의 전체 규모와 구조,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전체 길이는 43m, 경사도 12°내외의 가마로 전형적인 초기청자가마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처음 벽돌을 재료로 하여 축조하였다가 이후 진흙가마로 개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 기의 가마에서 벽돌가마가 진흙가마로 변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청자가마에서 확인된 최초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가마 주변에 있는 대규모 폐기장에서는 다양한 초기청자를 비롯하여 갑발, 벽돌 등의 요도구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丈'자형 등의 명문이 새겨진 청자와 용도 미상의 요도구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도토리 중평 요지 5차 문화재 조사서 확인

이번 5차 문화재 조사는 진안군과 국립근산대학교박물관(관장 광장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에 의해 조사와 함께 유적의 성격과 향후 조사방향, 보존 대책 등 학술적 자문을 얻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했다.

이날 이종민(충북대 교수), 장남원(이화여대박물관장), 김규호(공주대 교수) 등의 전문위원을 비롯한 진안군 관계자와 국립근산대학교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조사관

스타트업 사업화지원 (2차 재공모) 사업공모

공모기간 : 2017. 8. 1. ~ 2017. 8. 16.
접수기간 : 2017. 8. 7. ~ 2017. 8. 16.

지원대상 : 게임 개발 및 개발예정중인 (예비)창업자 및 콘텐츠를 보유한 초기기업(창업 3년 미만)

지원분야 :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컨설팅), 인터넷지원

접수방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전북 글로벌 게임센터 www.jbgame.kr